

분실건 찾는데 수백만원... 치료비도 ‘펑펑’

반려동물 1000만시대... 동물 아닌 가족의 반열에

광주동물보호소 유기동물 주인 찾는 비율 3년새 7%↑

“강아지를 찾습니다. 사례금 200만원.” A씨는 최근 2주 사이 가족들과 함께 광주시 일원에 전단지 1000여 장을 붙였다. 5년간 함께 생활했던 강아지 ‘사랑이’(말티즈)를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지난 9월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인근에서 사랑이를 잃어버렸다. 어릴 때부터 소심하고 겁이 많던 사랑이가 주변 소음에 놀라 승용차 창문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 것이다. A씨는 급히 차를 세우고 사랑이를 애타게 불렀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사례금 200만원이 적힌 전단지를 만들었다.

A씨는 “사랑이는 다른 사람보다 저를 더 챙긴 아이였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꼭 찾고 싶다”며 “전단지를 보고 자신도 같은 경험이 있다고 격려하는 전화가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강아지와 고양이 등을 단순히 함께 생활하는 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가정이 늘고 있다. A씨와 같이 수백만 원을 들여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거나 상처 입은 애완동물을 위해 비싼 수술비를 거머가 지불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유기견보호센터’ 등 인터넷 동물



사이트에는 100만~200만원에 달하는 사례금과 함께 반려동물을 찾는 글이 매일 같이 올라오고 있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등으로 50만~1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다”며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가까이에 두고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만 매년 2000마리가 넘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버려지고 있지만 주인을 찾거나 입양을 통해 새 주인을 만나는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다. 광주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입소 두수 대비 주인을 찾은 비율은 지난 2013년 11.3%에서 지난해 18.5%로 늘었다. 유기견·유기묘의 입양률(입소 두수 기준)도 2013년 35.35%, 2014년 37.73%, 2015년 45.0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5
해질녘 17:56
날출 21:59
몰림 09:47

전통·변개 동반한 겨울비

29일까지 광주·전남에 5~30mm의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하리고비	1/5	보성	하리고비	-1/4
목포	하리고비	1/4	순천	하리고비	1/4
여수	하리고비	3/4	영광	하리고비	-1/4
나주	하리고비	-1/5	진도	하리고비	1/5
완도	하리고비	1/5	진주	비또는눈	-2/4
구례	하리고비	-2/4	군산	비또는눈	-1/4
강진	하리고비	0/5	남원	비또는눈	-3/4
해남	하리고비	0/5	축산도	하리고비	4/5
장성	하리고비	-1/4			

◇바다 날씨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남부	면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1.0~2.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5~2.5	
서부	면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4:35 17:03 11:42	09:52 22:18 05:21
여수	23:52	17:41

◇주간 날씨

29(금)	30(토)	31(일)	2/1(월)	2(화)	3(수)	4(목)
☁ 2/5	☁ 1/5	☁ 1/6	☁ -2/4	☁ -3/4	☁ -3/5	☁ -3/5



◇생활지수

체감온도	관심
동파	낮음
뇌졸중	높음

광주·전남 내일까지 비 최고 30mm

29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다.

2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8일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남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29일까지 전남 남해안 10~30mm, 그밖의 지역은 5~20mm다.

기상청은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북동내륙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다”며 “전통·변개가 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기온은 최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최고 3~5도 분포를 보이겠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북구 청소년 40%가 스마트폰 중독

하루 3~4시간 이상 사용...채팅·SNS로 여가활동

광주 북구지역 청소년 10명 중 4명이 하루 3~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도 인터넷 채팅과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북구지역 초·중·고교생 145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4시간에 달하는 학생은 32.1%, 5시간 이상은 8.7%로 북구지역 초·중·고교생의 40.8%가 하루에 3~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1시간

미만 사용자는 17.8%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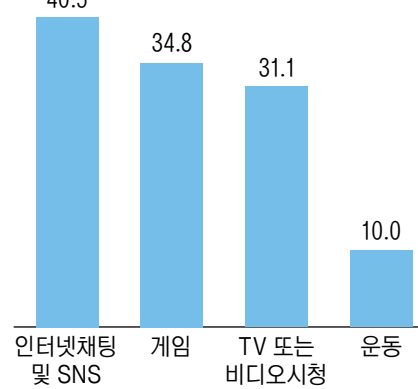
특히 3~4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은 중학생에서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중학교 여학생(57.5%)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북구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중복응답)은 인터넷 채팅 및 SNS가 40.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게임(34.8%), TV 또는 비디오시청(31.1%), 친구 만나기(25.6%) 순이었다. 여가시간에 운동을 한다는 학생은 10%에 그쳤다.

북구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간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고 있었다. 사교육 비율은 초등학생이 88.5%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92.6%가 학

■북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단위: %, 복수응답)



원 또는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이 북구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설은 휴식공간(휴게실, 카페) 27.1%, 도서관과 전시실 26.5%, 체육시설 21.6% 순이었다.

/김경민기자 kki@

케냐에서 한국어 교육 조선대 세종학당 개소

아프리카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조선대 세종학당이 문을 열었다. 조선대는 26일(현지시간) 오전 아프리카 케냐 국립 케냐타대학 언어교육원에서 서재홍 총장과 박대환 조선대 대외협력처장, 케냐타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케냐타대 나이로비 세종학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세종학당은 외국 현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곳으로, 조선대는 지난 2013년 국립 케냐타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한 뒤 지난 2014년 한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대학에 유학센터를 개설했다. 조선대는 세종학당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 한국어를 보급하고 한국 문화를 전파하게 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

광주시의회, 유치원 누리예산 승인

3개월분 176억원 통과...어린이집은 광주시가 지원

광주지역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3개월분이 광주시의회 승인을 받아 유치원 교사들이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27일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소집한 뒤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교육청이 이날 승인을 요청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176억원)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날부터 2만3907명에게 1인당 월 29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25일 급여일임에도 월급을 받지 못했던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1000여명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보인

다.

시의회는 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의 책임이라며 한 톨도 책정하지 않자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시가 3개월치 180억원을 월 2만147명에게 지원하기로 해 연초 우려된 보육 대란과 관련해 급한 불은 일단 껐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청이 정부보육비를 지자체에 넘겨 일선 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청각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보장구 지원

대한보청기 구입이 쉬워졌습니다!

(청각장애인 2~6급) 등록증 소지자
국가보조금 1,310,000 지원 + 맞춤구입 + 맞춤렌탈

A/S, 사후관리, ... 무료지원!

양쪽 귀로 잘 들으세요!!

대한보청기와 상담하셔서,

청각장애인 국가보조금 1,310,000 원 받으세요!

청각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소지자(2급~6급). (본인부담금 10%)

한 달 3,4만원으로 맞춤 렌탈

묵은 들지 않는 보청기 렌탈 (평생 가임비 별도)

대한보청기의 제반서비스 무료!

사후관리 - A/S, 배터리, 습기 제거제, 정기적 청력검사, 보청기 성능검사 노후 시 새 제품 교체 등...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청각장애 등급 2~6급의 해당장애 5년간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은 분
등록증이 없으신 분은 대한보청기 구입을 하시면 등록 지원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광주·전남 본점 **0621430-8900**
순천·여수 본점 **0611741-4880**
전북·전주 본점 **0631251-4999**

◆정안본점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